홀리타임즈

데이빗리 목사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갈이 만난 하나님

목차

CONTENTS

제1장 이름 없는 여인 … 7

제2장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여인 … 16

제3장 만남의 자리, 광야의 샘곁에서 … 30

제4장 이스마엘의 이름이 말하는 것 … 42

제5장 엘로이-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 53

제6장 다시 돌아가는 길 … 69

제7장 광야에서 낳은 아들 … 82

제8장 약속과 침묵 사이에서 기다리다 … 94

제9장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 106

제10장 광야에도 은혜가 흐른다 … 118

제11장 말씀하시는 하나님 … 134

제12장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 147

제13장 이름 없는 사람을 위하여 … 162

제14장 축복의 길 … 177

들어가는 말

성경은 언제나 이름 없는 자들을 통해, 이름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곤 합니다. 하갈. 그녀는 여주인의 여종이었고, 아브라함의 아내도 아니었으며, 선택된 언약의 계승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님께 이름을 붙여 부른 여인이 되었습니다. "엘로이"-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 이름은 단지 하갈 개인의 신비로운 체험이 아닙니다. 이는 오늘도 세상의 가장자리에서 소외되고, 잊히고, 외면당한 수많은

사람들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그런 이름 없는 이들의 이야기이며, 동시에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창세기 16장과 21장에 등장하는 하갈의 여정을 따라가며, 단순한 해석을 넘어서 하갈의 심리, 그녀의 침묵, 그녀가 경험한 하나님의 개입, 그리고 오늘날 하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통과 희망을 함께 조명합니다. 또한 성경의 원어와 고대 근동의 역사·문화·생활풍습·여성의 지위에 대한 고찰을 통해 하갈 이야기를 더욱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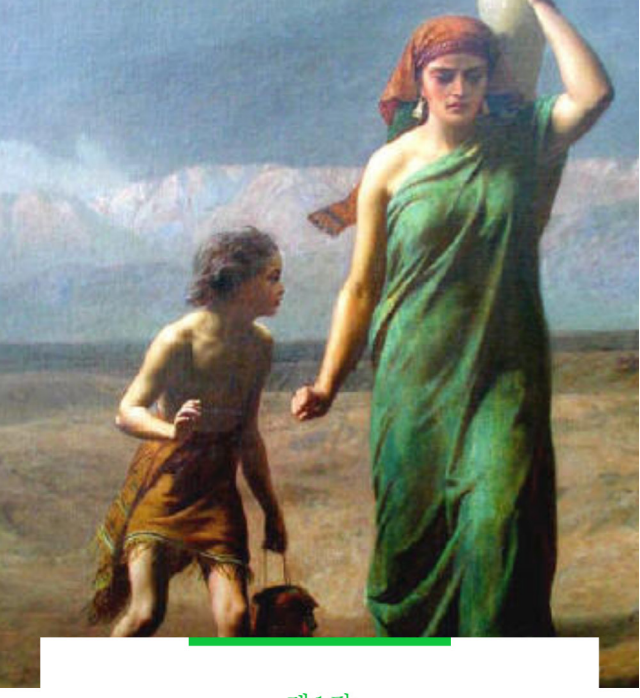
더 나아가, 이 책은 하갈을 통해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이 단지 위로나 동정의 눈빛이 아닌, 개입과 회복, 다시 세움의 시작임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독자들은 하갈이 광야의 우물가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자신의 내면에서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책의 각 장마다 실존 인물의 간증이 담

겨 있으며, 독자들이 하갈의 고백을 오늘 자신의 언어로 다시 써 내려가도록 돕는 묵상 질문과 기도문, 그리고 공동체 나눔 자료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간증은 모두 실제 사역 현장에서 수집하거나 각색한 이야기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눈동자를 경험한 이들의 증언입니다.

『엘로이-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책은, '누구도 나를 모른다고 느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는 깊은 진리로 독자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하갈처럼 외면당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만나는 은혜가 이 책을 읽는 모든 분들의 삶에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 데이빗리 목사



제 1 장

이름 없는 여인, 하나님의 시선에 들다

엘로이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성경말씀
BIBLE VERSES

창세기 16:1~3

아브람의 아내 사래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녀에게는 하갈이라는 여종이 있었습니다.
사래는 아브람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막으셨으니, 당신은 내 여종에게 들어가십시오. 혹시 그녀로 말미암아 내가 자식을 얻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아브람은 사래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래는 그녀의 여종 하갈을 남편 아브람에게 주었습니다.

묵상 시

Meditation
Poet

이름이 없어도,
나는 존재합니다.
사래의 말에 묻히고,
아브람의 침묵에 가려진 그 자리에서,
당신은 나를 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부르지 않는 이름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나는 오늘도,
그 시선 하나로 살아갑니다.

묵상 에세이

Meditation
Essay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종은 법적 지위도,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도 없었습니다. 주인의 뜻에 따라 자유롭게 매매되거나, 자녀를 낳게 하여 그 자녀는 주인의 소유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앗수르 법전과 함무라비 법전 같은 고대 근동 법률 문헌에도 등장하며, 하갈의 경우처럼 여종이 후사를 낳는 대리출산 형태는 당시 사회에서 일반적인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문화를 단순히 묘사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그러한 구조 속에 있는 이들의 고통을 '보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갈은 사래의 여종이자 이집트 출신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름은 기록되었지만, 불

려지지 않는 이름. 아브람과 사래의 이야기 속에 '기능'으로 등장하지만, 인격으로 존중받지 못했던 존재. 성경 기자는 그녀의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으나, 그녀가 말하거나 의사를 표현한 장면은 극히 드뭅니다. 마치 배경 인물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배경 인물을 주목하셨고, 그녀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끄십니다.

하갈이 임신했을 때 그녀의 내면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여종으로 살아온 그녀에게 처음으로 무언가를 '가졌다는 감각', 생명을 품은 자의 자부심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자신이 결코 주인이 될 수 없다는 현실과도 마주하게 됩니다. 임신은 곧 그녀의 위치를 위협으로 바꾸었고, 사래는 그 존재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 갈등은 학대가 되었고, 하갈은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하갈을 부르십니다.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

냐?" 이 질문은 단순한 정보 확인이 아닙니다. 이는 고대 히브리 문학에서 정체성을 묻는 방식입니다. '너는 누구이며, 너의 시작과 방향은 어디인가?' 이 질문을 통해 하나님은 그녀의 존재를 새롭게 정의하십니다.

교부 요한 크리소스토무스는 하갈의 이야기를 두고 "가장 낮은 자에게 임하시는 가장 높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갈이 받은 하나님의 방문을 단순한 위로가 아닌, '주도권의 회복'으로 보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시선은 단지 동정이 아니라, 존재를 회복시키는 능동적 개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엘 로이'의 이름에 담긴 의미입니다. 히브리어 '엘'은 하나님을, '로이'는 보다, 살피다, 돌보다를 의미하는 <라아>의 형태입니다. 즉, 하갈은 하나님이 '관찰'이 아닌 '돌보는 사랑'으로 자신을 바라보신다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 간증은 실제 한국의 한 복지교회에서 사

역하시는 김현정 사모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청소년 시절 성폭력으로 인해 임신했고, 십대의 나이에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반대로 아이는 입양되었고, 그녀는 오랫동안 그 일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살아야 했습니다. 교회조차 그녀에게는 안전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힘든 가정에서 자란 아이', '문제 있는 자매'라는 시선으로 바라봤고, 그녀는 점점 침묵 속에 숨어들었습니다. 그렇게 1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어느 날, 한 여성 목회자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목회자는 성경 속 하갈 이야기를 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름 없이 불리는 자를 다시 이름으로 불러주신다."

그날 이후 김 사모님은 오랜 침묵을 깨고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를 처음으로 교회에서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제 이름이 불리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게 말씀하셨어요. '현정아, 나는 네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어

디로 가는지도 안다.' 그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지금 그녀는 미혼모 쉼터와 청소년 상담사역을 감당하며, '이름을 다시 불러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 사모님의 간증은 오늘의 하갈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이름을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하갈의 이야기는 단지 고대의 한 여인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사람을 '이름'이 아닌 '역할'이나 '상처'로 부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갈을 '여종'이라 불렀던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를 '이혼자', '실패자', '문제아', '장애인', '이민자'로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세상의 언어를 거부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십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있습니까? 혹은 누구로부터 당신의 이름이 지워졌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하갈처럼, 혹은 김현정 사모님처럼, '잊혀진 이름'을 다시 듣고 싶은 마

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분은 단지 보시는 분이 아니라, 돌보시는 분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무가치하게 평가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광야 한복판에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갈이 들었던 질문,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은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길을 잃었을 때, 고통 속에 침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보고 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갈의 하나님, 엘 로이-그분은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선을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이름 없는 존재로 머물 수 없습니다. 우리도 이제, 누군가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엘 로이의 시선을 경험한 이들의 삶의 응답입니다.

묵상 질문

Meditation
Questions

나는 지금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이름은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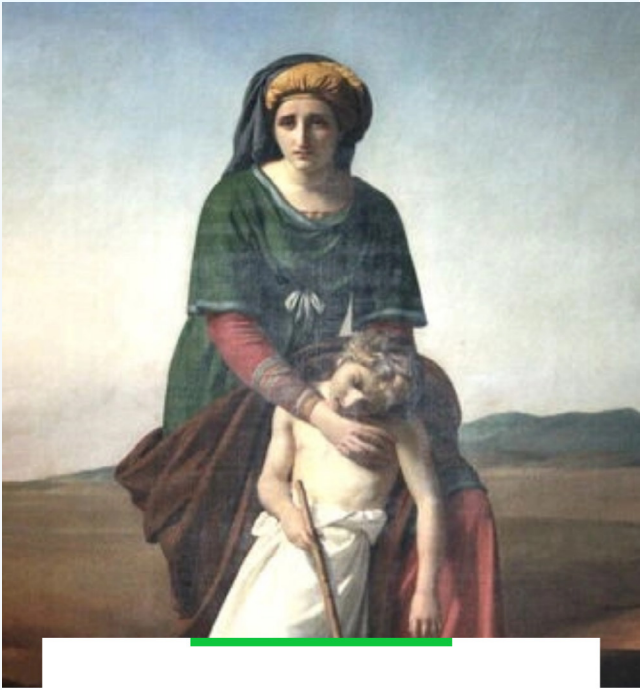
다른 사람을 역할이나 과거로만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가장 외로웠던 순간,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을까?

묵상 기도문

Meditation
Prayers

하나님,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을 때,
주님은 제 이름을 속삭여 주셨습니다.
이름 없이 불려진 시간 속에서도,
주님의 시선은 저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갈을 만나주신 것처럼, 오늘 저도 만나주옵소서.
저를 다시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 있는 존재로 걸어가게 하소서.
아멘.



제 2 장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여인

엘로이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성경말씀

BIBLE VERSES

창세기 16:4~6

하갈이 임신하매, 그녀가 자기의 임신한 것을 알고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래가 아브람에게 말하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녀가 자기의 임신한 것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여호와께서 나와 당신 사이를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람이 사래에게 말하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녀에게 행하라." 이에 사래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그녀의 앞에서 도망하니라.

묵상 시

Meditation
Poet

나는 그날,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음을 느꼈다.
어쩌면 그 눈빛은
오래전부터 나를 향해 있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이가
내 안에서 살아 숨 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내 심장은
처음으로 '내 것'을 가진 사람처럼 뛰었다.

그 순간부터
나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나는 더 깊은
그림자 속으로 밀려났다.

묵상 에세이

Meditation
Essay

하갈의 이야기는 한 여성의 자리를 넘어선, 억눌린 자들의 전체적인 초상입니다. 여종이자 이방 여인이었던 하갈은 사래의 명령에 따라 아브람과 동침했고, 곧 임신하게 됩니다. 단순히 대리출산의 도구로 사용된 하갈의 임신은, 예상치 못한 감정의 전환을 불러옵니다. 그동안 철저히 종의 위치에 있었던 하갈에게 '임신'은 단순한 생물학적 상태가 아니라, 자기 존재의 재인식이었습니다. '나도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자각, '내가 무가치한 존재만은 아니었구나'라는 의식이 싹튼 순간이었습니다. 하갈은 이 깨달음을 통해 처음으로 주인 사래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게 되었고, 그 미세한 변화가 사래에게는 감정의 균열

로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멸시합니다. 성경은 하갈이 사래를 '멸시했다'고 기록합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고개를 치켜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속에 깃든 억압에 대한 무언의 저항일 수 있습니다. 하갈은 자신도 모르게, 자기 안에서 살아나고 있는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열망'을 느꼈고, 그 존엄이 억압적 관계 구조 속에서 표출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래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신이 허락한 구조 안에서 하갈은 철저히 도구로만 존재해야 했습니다. 하갈이 그 경계를 넘어서자, 사래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음을 느낍니다. 그리하여 사래는 남편 아브람에게 그 분노를 토로하며, 아브람 또한 책임을 회피한 채 사래의 손에 다시 하갈을 넘겨줍니다.

히브리어로 '학대하다'는 <아나>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특별한 무게를 지닌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종종 이스라엘 백성

이 이집트에서 겪은 압제와 노역을 묘사할 때 사용되며(출 1:11), 여성을 강제로 굴복시키는 상황(신 22:24)에도 쓰입니다. 이는 단지 감정적 갈등이 아닌 구조적 폭력이며, 심리적 억압을 넘어선 인격의 말살을 의미합니다. 하갈은 사래로부터 그런 종류의 억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억압은, 단지 눈치 주는 말 한 마디나 무시하는 태도를 넘어서, 그녀를 인간 이하의 존재로 취급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갈은 결국 도망합니다. '도망'은 고대 사회에서 노예나 여종에게는 치명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도망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율법과 관습은 여종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았고, 여종은 철저히 주인의 소유물로 취급되었습니다. 따라서 하갈의 도망은 단지 육체적 탈출이 아니라, 관계와 권력의 그물망을 찢고 나오는 존재 선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죽이려는 구조로부터 도망쳤고, 하나님은 그런 그녀를 '광야'에서 만나주십니다.

하갈이 선택한 도망의 방향은 '숫 길 샘 곁' 이었습니다. 이는 고대 남방 무역로였으며, 광야 중에서도 특히 험한 지역으로 유명했습니다. 즉, 하갈은 아무 대비 없이, 보호받을 가능성 없이, 죽음을 무릅쓰고 떠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 모든 인간적 보장이 끊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갈을 만나십니다. 하갈의 광야는 '절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포기하는 그 지점을 가장 가까운 거리로 삼으십니다.

우리는 누구나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관계에서, 자리에서, 책임에서, 그리고 스스로의 실망스러운 모습으로부터.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도망의 길 끝에도 하나님은 계신다고. 하나님은 도망친 이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하갈아." 이는 단순한 호명이 아닙니다. 고대 세계에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인격을 부여하고, 관계를 시작하겠다는 뜻입니다. 주인 사래조차 그녀

를 '여종'이라 불렀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모두에게 들려져야 할 소리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는 종종 하갈처럼 침묵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침묵을 깨뜨리시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은 길을 잃은 이들에게는 방향이 되고, 상처 입은 이들에게는 기억을 회복시키며, 정체성을 잃은 이들에게는 '존재'의 시작이 됩니다.

하갈은 이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아들에게도 이름을 주십니다-이스마엘,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은 하갈의 울부짖음을 들으셨고, 그녀의 눈물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리라는 약속까지 주십니다. 한 여인의 도망이, 한 민족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이처럼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 공동체 안에도 여전히 하갈들이 있습니다. 역할 속에 묻혀 살아가며, 정체성과 존엄을 잃고 살아가는 이들.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계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는 하갈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 도망치는 이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광야까지 따라가 함께 울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는 하갈에게 사래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도망자들이 돌아올 수 있는 광야 한가운데의 오아시스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그러한 곳이 되기를, 우리 자신이 그러한 음성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묵상 질문

Meditation
Questions

나의 도망은 어떤 이유에서 비롯되었는가? 그 도망의 끝에서 나는 무엇을 만났는가?

'학대'라는 단어 앞에서 나는 누군가에게 상처 준 적은 없는가, 혹은 그 단어의 당사자였던 적은 없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던 순간은 언제였는가?

나는 지금 어떤 하갈을 마주하고 있는가? 그를 사래로 대하고 있는가, 하나님처럼 부르고 있는가?

묵상 기도문

Meditation
Prayers

주님,
도망치고 싶었던 그날의 저를 기억하십니까?
사람이 아닌 주님의 시선만이 나를 이해해 주셨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제 이름을 들었을 때, 삶은 새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다시 광야로 가는 이들에게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너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 질문이 생명의 시작이 되게 하소서.
아멘.

제 3 장

만남의 자리, 광야의 샘곁에서

엘로이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성경말씀
BIBLE VERSES

창세기 16:7~9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 샘 곁, 곧 술 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래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갈이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래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녀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묵상 시

Meditation
Poet

그날,
나는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을 줄 알았다.
내가 사라져도
그 누구도 궁금해하지 않을 줄 알았다.

햇빛은 정오를 지나 있었고,
모래는 발바닥을 뜨겁게 조였으며
심장은 무거운 돌처럼 가라앉고 있었다.

그런데 그곳,
아무 말 없이 숨만 쉬고 있었던 그 자리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하갈아.

그 소리에,
나는 다시 태어났다.

묵상 에세이

Meditation
Essay

광야는 인간의 모든 보호막이 벗겨지는 곳입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에서 광야는 단순한 자연 공간이 아닌, 하나님과 인간이 깊이 만나는 장소로 이해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엘리야,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사역의 전환점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갈에게도 그 광야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을 "사래의 여종 하갈아"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히브리 문학의 전형적인 '호명구조'이며, 원어상으로는 "하갈, 여주인 사래의 여종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갈'이라는 이름은 '도망자' 혹은 '이

방의 자'를 뜻할 수 있고,<쉬프하>(여종)은 종이면서도 계약 안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정체성'과 '소속'을 함께 부르시며, 단지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질문은 계속됩니다.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히브리어 원어로는 '메인 바트 울란 아타 홀레크'이며, 이는 장소의 이동만이 아니라 '존재의 궤적'을 묻는 질문입니다.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나와 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로 부를 때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갈에게 '너'로 말하고 계십니다. 하갈을 객체로 대하지 않고, 인격적인 '너'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정보 탐색이 아니라, 하갈 스스로 자신의 과거와 미래, 존재의 방향성을 묻게 하는 구조입니다.

하갈은 "나는 내 여주인 사래를 피하여 도

망하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놀랍게도 이 구절은 하갈이 성경에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로 말을 한 장면입니다. 그동안 수동적 존재로만 묘사되던 그녀가,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이는 고대사회에서 극히 이례적인 장면입니다. 교부 오리게네스는 이 장면을 주목하며 "인간은 하나님의 시선 아래서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에게 "돌아가서 복종하라"고 명합니다. 여기서 '복종하다'는 히브리어 <아나>는 앞서 2장에서 언급된 '학대하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어근입니다. 즉, 하나님은 하갈에게 고통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사명을 위한 재진입'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두고 감람산에서 피하고 싶음을 기도하셨지만, 결국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마 26:39)라 고백하셨습니다. 하

갈의 복종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이는 "엘이 들으셨다"라는 뜻이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뿌리가 유사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단지 이삭의 계보만이 아니라, 이방의 계보도 기억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선택이 단지 한 민족, 한 사람에게만 제한되지 않음을 하갈과 이스마엘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삶에서 이와 같은 하갈의 체험은 오늘날에도 반복됩니다. 캐나다의 여성신학자 버지니아 렐리아는 이민 여성의 사례를 통해 "하갈의 텍스트는 오늘날 여성 이민자들이 겪는 정체성 상실과 고립, 그리고 하나님을 통한 회복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분석합니다. 그녀는 특히 남미 이민자 여성들이 직장에서 겪는 언어 차별과 신분 차별을 이야기하며, '광야의 샘곁'이 바로 이민자의

일터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간증으로는 故 이애란 박사의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탈북해 남한으로 오기까지 생명을 위협받는 긴 여정 속에서, 이애란 박사는 광야처럼 황량한 중국의 산골 마을에서 혼자 도망쳐 숨어 있던 시절, 자신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애란아,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네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도 나는 안다." 그 한 마디에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았고, 탈북자 인권을 위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하갈과 똑같이, 그녀도 '도망'의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광야는 피해야 할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샘이 터지는 자리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시 23:4). 다윗도 엘리야도 예수님도, 모두 광

야에서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광야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혹시 '도망'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하갈아'라고 부르시며 묻고 계십니다. '너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물음은 비난이 아니라,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는 시작입니다. 우리도 오늘, 광야의 샘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다시 일어서기를 기도합니다.

묵상 질문

Meditation
Questions

하나님은 지금 나를 어떤 이름으로 부르고 계십니까? 그 안에 내 정체성과 소명이 담겨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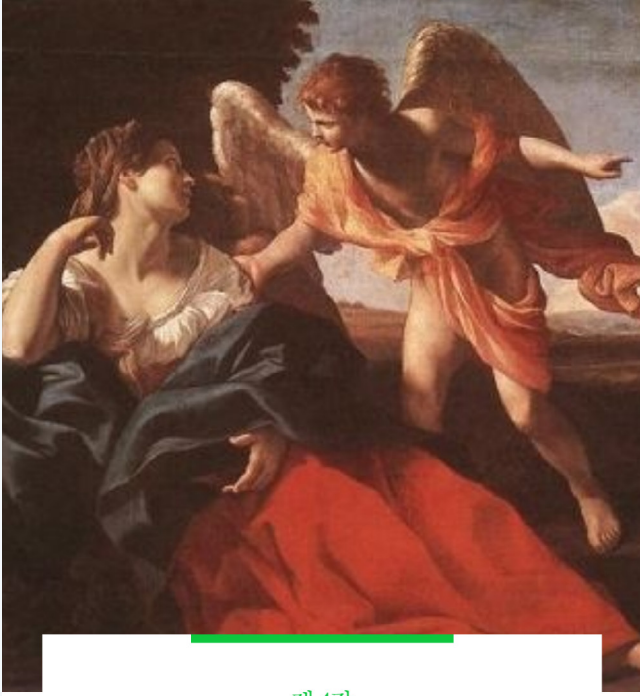
'광야의 샘곁'은 내 삶에서 어떤 장소입니까? 나의 광야는 지금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복종하라'고 하시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그곳에서 나는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묵상 기도문

Meditation
Prayers

하나님,
저의 길이 끊어진 줄 알았을 때,
주님은 광야 샘 곁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를 '하갈아'라고 부르시며잊힌 이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도 저의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묻게 하소서.
그 물음 속에서,
저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제 4장

이스마엘의 이름이 말하는 것

엘로이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성경말씀

BIBLE VERSES

창세기 16:10~12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 것이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 살리라."

묵상 시

Meditation
Poet

그분은 말씀하지 않아도 들으신다
숨죽인 기도의 울림도
심장의 떨림도
광야 모래에 묻힌 눈물도

하갈처럼 버려진 이름 위에
그분은 응답처럼 이름을 주신다

이스마엘
그 이름이 내 가슴에 울릴 때
나는 알았다
내가 잊힌 존재가 아님을

묵상 에세이

Meditation
Essay

하갈이 들은 약속은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여성이 받은 사자(천사)의 직접적인 계시입니다. 그 대상이 이방인, 종, 여성이라는 점은 구약 시대 문화에서는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가장 먼저 찾아간 인물이 바로 하갈이라는 점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인간의 위계와 얼마나 다르며, 소외된 자를 중심에 세우는 은혜의 질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그녀의 고통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어 "들으셨다"는 동사 <샤마>는 단지 소리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목하고 응

답하며 개입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신명기 6장 "쉐마 이스라엘"(들으라, 이스라엘아)과 동일한 어근으로,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전인격적 반응'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탄식'을 들어주신 것이며, 이는 구약 전체에서 가장 자주 반복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고통받는 자의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

하갈이 낳을 아들의 이름은 이스마엘. "엘이 들으셨다." 이 이름은 곧 그녀의 눈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고, 하나님과 그녀의 관계를 맺는 거룩한 징표였습니다. 이 이름이 하갈의 입에서 불릴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이 기억되고 응답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이름은 '기도의 응답'이 사람의 삶 안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페레 아담>으로, 이는 자유로운 야생 당나귀를 뜻합니다. 욥기 39:5-8에서도 이 들나귀는 광야에 거하며 얽매이지 않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속박되지 않고, 억압당하지 않는 성품을 부여하신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종의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그 존재는 결코 노예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유인으로 자라날 것이며, 심지어 다른 이들과의 갈등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그의 민족이 지닌 영적 유산이자 운명입니다.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록』에서 이스마엘을 '약속 밖에서 태어난 자이지만, 하나님의 귀에 닿은 울음으로 인해 역사 안에 새겨진 이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기억은 인간의 자격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는 마치 예수께서 탕자의 형이

아닌, 탕자에게 잔치를 베풀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고통의 음성을 통해 자신의 나라를 확장하십니다.

이 약속은 단지 하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녀에게 "네 씨를 크게 번성케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과 동일한 약속(창 15:5, 창 17:5)을 반복하는 것으로, 하갈의 자손도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삭의 언약과는 다른 길이지만, 결코 가치 없는 길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진리는-하나님은 중심만이 아니라 가장자리에도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이스마엘의 후손은 아라비아 민족으로 연결되며, 후일 이슬람 세계의 뿌리가 되는 인물로 여겨집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그 연계성을 구체화하는 데는 조심스러움이 따르지만, 최소한의 역사적 흐름

은 고대 이스마엘 후손들이 광야 유목민족으로 독립적 삶을 살았다는 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창 25:18의 기록에서도 드러나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 거하였다"는 말씀은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스마엘'과 같은 사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한 채, 광야의 샘 곁에 앉아 있는 순간–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들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죽음의 수용소에서』에서 말합니다. "고통은 의미가 부여될 때, 더 이상 파괴적이지 않다." 이스마엘의 이름은 고통에 의미를 부여하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갈의 상처는 아들의 이름을 통해 '사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간증 하나를 더 소개하자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요 4장). 그녀는 정오의 햇빛

을 피하여 물을 길으러 온 여인이었고, 사회적으로는 버림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거셨고, 그녀의 과거를 정확히 아셨으며, 그녀의 인생을 바꾸셨습니다. 하갈과 사마리아 여인은 모두 '여성', '소외자', '낮은 자'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들을 통해 민족과 마을이 살아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당신은,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 이름이 '이스마엘'이라면,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눈물의 기도, 침묵의 한숨, 무릎 꿇은 그 밤을… 하나님은 듣고 계셨고,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그 들으심이 언젠가 '사명'으로 태어날 것을 믿으며, 오늘도 그 이름을 품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묵상 질문

Meditation
Questions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들으신 '고통'은 무엇입니까? 그 응답은 어떤 방식으로 왔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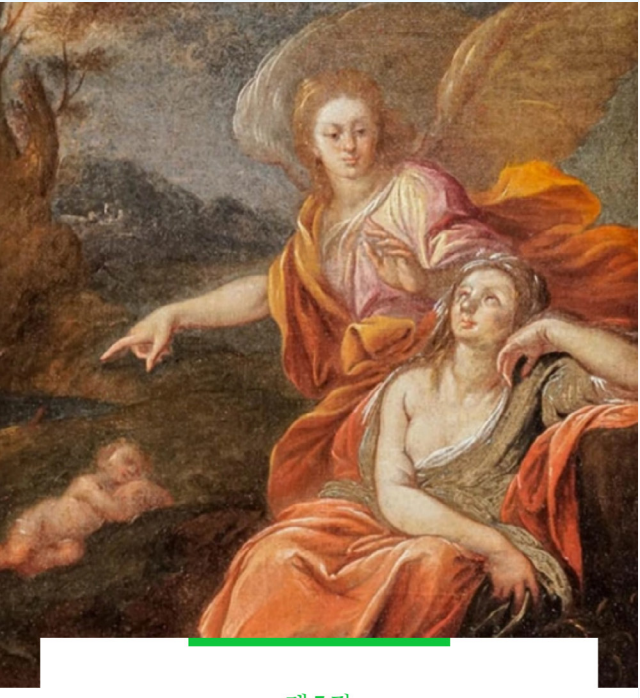
내가 낳은 '이스마엘'-즉, 고통에서 태어난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 주변의 하갈은 누구입니까? 그들의 고통을 내가 어떻게 듣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묵상 기도문

Meditation
Prayers

하나님,
저의 숨죽인 기도,
저의 눈물 어린 외침을 들으셨던 주님,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통해, 당신이 응답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확신을 갖게 하시고,그 들으심이 다시 누군가를 위한 사명으로 자라나게 하소서.
아멘.



제 5 장

엘로이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성경말씀

BIBLE VERSES

창세기 16:13~14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뵈었는가 함이라. 이러므로 그 우물 이름을 브엘라하로이라 하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묵상 시

Meditation
Poet

광야의 샘가에서
누구도 보지 않던 나를
당신은 바라보셨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듯 보신 것이 아니라

내 속 깊은 상처의 틈을
한 올 한 올 꿰매듯
살피셨습니다

그 사랑의 시선 앞에
나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엘로이-그 이름을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묵상 에세이

Meditation
Essay

하갈이 하나님께 부여한 이름, "엘로이"-히브리어로 <엘 로이>-는 성경 전체에서 단 한 번 등장하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직역하면 '나를 보시는 하나님' 또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보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 <라아>는 단순한 시각적 관찰이 아니라, '주의 깊게 보다', '감정적으로 응시하다', '돌보며 살피다'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뜻하며, <로이>는 '나를 보시는 분'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엘로이"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로도 정확하게 해석될 수 있으

며, 이는 하나님이 단지 전지적 존재로서 관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갈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녀의 삶 한복판에 개입하신 하나님을 묘사하는 인격적 고백입니다. 현대어로 표현하자면 "나를 끝까지 바라보시고, 마음에 품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표현은 단지 시적인 고백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단 한 번 등장하는 '엘로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신학적 깊이를 담아낸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하나님의 '보시는 속성'은 성경 곳곳에 나타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숨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 "네가 어디 있느냐?"(창 3:9)고 물으셨고, 이는 단순한 위치 탐색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애절한 시선이었습니다. 가인 역시 아우를 죽인 후 "내 죄벌이 너무 무겁습니다"(창 4:13)라며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를 벌하심과 동시에 표를 주셔서 그 생명을 보호하셨습니다(창 4:15).

모세의 이야기에서도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3:7에서

하나님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고난을 알고” 계셨고, 이는 단순한 전지적 능력을 넘어선 감정적 공감과 구원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그 시선을 통해 사람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나다나엘이 자신을 몰랐다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요 1:48)고 말씀하시며, 그 마음을 만지십니다. 또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밖에 나가 통곡하니라”(눅 22:61~62)는 장면은, 하나님의 시선이 죄책감을 비추어 회복의 기회로 바꾸는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성경 장면들은 하나님의 ‘보심’이 단순한 감시가 아니라, 사랑과 회복의 통로임을 보여줍니다. 하갈의 엘로이 고백은 그

런 하나님의 본성을 압축한 신학적 선언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든 순간의 공통된 본질입니다. 히브리어로 <엘 로이>는 성경 전체에서 단 한 번 등장하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하고, <로이>는 '나를 보는 자', 또는 '주의 깊게 살피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단지 하나님의 속성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하갈이 광야 한복판에서 경험한 인격적인 만남을 압축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멀리서 '관찰'하신 것이 아니라, 상처와 절망의 깊은 자리에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히브리어 동사 <라아>는 '보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주의 깊게 살피다', '선택하다', '지켜보다'라는 함의를 담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에서도 등장하며,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 자신을 "여호와 이레"(YHWH Yir'eh, 여호와께서 미리 보시고 준비하신다)로 계시하십니다. 즉, 하갈에게 하나님

은 '현재의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는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같은 하나님이시나,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각 인생의 무너진 지점에서, 다르게 응답하십니다.

출애굽기 3:7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라오 라이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고난을 알고…" 이는 하나님께서 단순히 인간의 아픔을 인지하실 뿐 아니라, 그것에 응답하고 개입하신다는 구약적 계시의 핵심입니다. 하갈은 이러한 하나님의 본성-보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최초의 사람 중 한 명이었고, 더 놀라운 것은 그녀가 그 하나님께 이름을 붙였다는 사실입니다. 여성이, 종이, 이방인이 하나님께 이름을 붙이다니,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매우 이례적이며 강렬한 영적 선언입니다.

하갈은 우물 곁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

다. 그녀는 그 우물의 이름을 '브엘라하로이'–"살아 계셔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우물"이라 불렀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우물은 생명의 근원일 뿐 아니라, 만남과 계시, 언약의 장소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난 장소도, 이삭이 거주한 장소도 바로 이 우물이었습니다(창 24:62, 25:11). 그러므로 이 우물은 단순한 물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자리,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된 장소, 다시 말해 하나님이 보신 자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남습니다.

교부 요한 크리소스토무스는 이 장면을 해석하며 "하나님의 시선은 한 사람을 찾아내어 그 인생 전체의 궤도를 바꾸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갈을 '보이지 않던 자'라고 불렀고, 하나님은 그를 '보이는 존재'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이는 단지 위로의 사건이 아니라, 존재의 회복이며, 역사 안에 새겨진 정체성의 복원입니다.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인간의 진정한 만남은 "나-너"의 관

계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하갈과 하나님의 만남은 정확히 그 구조였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을 '너'로 불러주시며, 그녀의 고통에 '나'로 응답하셨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이는 매우 깊은 회복의 과정입니다. 정신분석가 자크 라캉은 인간의 자아 형성이 타자의 시선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바라봐주는 시선 속에서 존재의 가치를 재확인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시선은 조건적이고 일시적이며 때로는 왜곡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전능하며, 절대적이며, 사랑 안에 머뭅니다. 하갈은 그런 시선으로 인해, 자신이 비로소 '보이는 자'라는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현대의 간증 가운데서도 이런 체험은 반복됩니다. 르완다 대학살로 인해 1994년, 이마쿠레 일리바기자(Immacule Ilibagiza)는 부모와 두 오빠, 친구와 이웃 등 사랑하는 사람들을 대부분 잃었습니다. 당시 22세였

던 그녀는 후투족에 의해 무자비하게 학살당하던 투치족이었고, 생존의 마지막 수단으로 한 신부의 집 목재 창고에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창고는 고작 91센티미터 폭의 어두운 방으로, 7명의 여성들이 함께 숨어 지냈고, 그곳에서 그녀는 91일간 세상의 모든 소리로부터 차단된 채 갇혀 있었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위험했던 그날들 동안, 그녀는 자신을 지탱한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녀는 성경 한 권과 묵주의 기도로 살아남았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를 보고 계십니다. 나는 잊힌 존재가 아닙니다." 그녀는 살해범의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기절할 것 같은 공포 속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르짖었고, 점차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에 젖어 들어갔다고 기록합니다.

대학살이 끝난 뒤 그녀는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왔지만, 모든 것이 무너진 폐허 같은 현실 앞에서 분노와 절망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시선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를 지켜보시며 보호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녀를 그 무참한 날들 속에서도 숨겨주신 하나님. 그 확신은 그녀로 하여금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하게 했고, 가해자들을 직접 찾아가 그들을 용서한다고 말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체험을 『Left to Tell』 이라는 책으로 남겼고, 오늘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증오와 분열을 넘어선 용서와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간증은 하갈의 고백처럼, "엘로이-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선언으로 이어집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어두운 창고 속에서도 하나님의 눈 속에서 살아 있었습니다. 그 눈동자 하나로, 나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갈의 고백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광야에서 버려진 듯 느껴질 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단지 지나가는 시선이 아니라,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시선, 내면의 고통과 상처를 꿰뚫는 시선, 회복을 위한 준비된 시선입니다. 엘로이-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야기를 지켜보시는 분임을, 그리고 그 이야기 속으로 걸어 들어오시는 분임을 증언합니다.

이 고백은 단지 위로에 머물지 않습니다. 엘로이라는 고백은 우리 삶에 책임을 요구합니다. 나를 보신 하나님을 만났다면, 나 역시 이제 누군가를 '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하갈처럼 외면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지만, 그 누구도 그 무너짐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그들을 보아주어라."

삶의 자리에서 '엘로이'를 고백한 자는 이

제 하나님의 눈을 품은 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그러한 하나님의 시선이 흘러나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상처받은 자가 숨지 않아도 되는 곳, 침묵 속의 울음이 외면당하지 않는 곳,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따뜻하고 섬세한 시선이 머무는 곳. 그것이 바로 '브엘라하로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시는 우물 같은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모임이 그런 자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듯, 우리도 누군가를 끝까지 바라봐주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단지 지나가는 시선이 아니라,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시선, 내면의 고통과 상처를 꿰뚫는 시선, 회복을 위한 준비된 시선입니다. 엘로이-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야기를 지켜보시는 분임을, 그리고 그 이야기 속으로 걸어 들어오시는 분임을 증언합니다.

묵상 질문

Meditation
Questions

나는 언제 '보이지 않는 자'처럼 느껴졌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셨습니까?

나에게도 '브엘라하로이'라 부를 수 있는 인생의 장소가 있다면 어디입니까?

지금 내 주변에 '하갈'처럼 숨어 있는 이들은 누구입니까? 나는 그들의 존재를 어떻게 '보아주고' 있습니까?

묵상 기도문

Meditation
Prayers

주님,
광야에서도 저를 잊지 않으시고,
숨은 자리에서도 저를 보시는 하나님,
엘로이.
그 사랑의 시선으로 인해,
저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오늘도 제 삶의 우물 곁에서 주님의 눈동자를 기억하게 하소서.
보이지 않던 이들에게도, 그 시선을 전하게 하소서.
아멘.

제 6 장

다시 돌아가는 길, 그러나 다르게 걷는 길

엘로이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성경말씀
BIBLE VERSES

창세기 16:9

여호와의 사자가 그녀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묵상 시

Meditation
Poet

돌아간다는 건
지워버리고 싶은 자리로 다시 향하는 것
그 길 끝에 다시 아픔이 기다릴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면

순종은 회피가 아니라 믿음의 발걸음
두려움 속에서도 걷는 은혜의 선택

나는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안고
그분의 약속을 품고

묵상 에세이

Meditation
Essay

하갈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명령은 그녀의 현실을 고려할 때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돌아가라." 그것도 자신을 학대하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차라리 광야의 외로움이 더 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의 감정과 조건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다시 억압 속으로 밀어 넣으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 안에서 새로운 일을 이루실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복종하라'는 말에 사용된 히브리어 <아나>는 억압과 겸손이라는 양면적 의미를 가

진 단어입니다. 단순히 강압적으로 순응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낮추고 맡기라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이 단어는 시편에서도 자주 사용되며, "[시 119:71]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라는 고백 속에도 반영됩니다. 하갈은 복종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유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전통에서는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경외의 믿음'이라 불렀습니다. 욥은 이유도 알지 못한 고난 앞에서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욥 1:21)라고 고백했습니다. 하갈의 발걸음 역시 그러했습니다. 비록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음성 하나로 그녀는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교부 요한 크리소스토무스는 이 장면을 두

고 "하나님의 명령은 곧 길이요, 그 길 위에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갈의 선택이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응답임을 강조했습니다. 즉, 하갈은 사래의 얼굴을 다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민족의 어미'가 되는 미래를 바라보며 걸어간 것입니다.

그녀의 심리적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현대 심리학은 외상 후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회복을 시작하는 첫 단계를 '의미 재구성'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고통을 고통으로만 남기지 않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때 치유가 시작됩니다. 하갈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고통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굴복이 아닌, 새로운 의미로의 나아감이었습니다.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고대 근동 사회에서 여종이 주인의 명령에 불복하고 도망쳤다는 것은 법적으로 큰 처벌을 받을 수 있

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갈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찾아오셔서 그녀에게 말걸고, 이름을 부르시며,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고대의 사회 구조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파격적인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당시의 문화와 제도 속에서조차 억눌린 자의 편에 서 계셨고, 그들의 음성 없는 외침을 들으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하갈은 단지 여종이 아니라, 억눌린 이들을 위한 '선지자적 상징'이 됩니다. 그녀의 선택은 단순히 개인의 순종이 아닌,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이 이 땅에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여주는 통로였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관계의 실패, 공동체 안의 갈등,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함 속에서, 우리는 떠나고 싶고 피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면, 그 길은 우리가 다시 발을 디뎌야 할 '약속의 자리'가 됩니다.

그때 순종은 단지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적 경배'가 됩니다.

이런 돌아감의 복된 예를 우리는 실제 인물들의 삶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여성 사역자 리사 터커스트(Lysa TerKeurst)는 미국 복음주의 교계에서 널리 알려진 인물로, 'Proverbs 31 Ministries'의 창립자이자 수많은 여성 독자에게 영향을 미친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사역 여정은 고통으로 점철된 여정이었습니다. 남편의 반복적인 외도와 신뢰의 파괴, 가정 붕괴의 위기 속에서 그녀는 심리적으로 철저히 무너졌고, 하나님께조차 버림받은 것 같은 공허함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남편이 회복을 약속하고 돌아온 뒤에도 다시금 외도로 무너지는 과정을 겪으며, 리사는 이혼이라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 시기를 "광야보다 더 깊은 절망의 골짜기였다"고 표현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담은 그녀의 책 『It's Not Supposed to Be This Way』(세상은 이렇게 흘러가지 말았어야 해)는 수많은 독자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리사는 어느 날 새벽 예배 중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에 속삭이시는 음성을 들었다고 고백합니다. '네가 처음 나를 만났던 자리로 돌아오라.' 그것은 남편에게 돌아가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역이나 가정이 회복되었을 때의 상태로 돌아가라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리사가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그 사랑 하나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했던 '처음의 자리'로 다시 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녀는 무릎 꿇고 눈물로 그 자리에 다시 돌아갔습니다. 성경을 다시 붙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그녀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붙잡게 되었고, 남편과의 관계 역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회개하고 중독 치료를 자원하며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였고, 결국 두 사람은 다시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리사는 그 여정 속에서 단지 개인적인 회복을 넘어서, '상처 입은 자들을 위한 치유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시 그 자리로 부르셨지만, 나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더는 사랑받기 위해 애쓰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깊이 사랑받은 존재로."

하갈도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사래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이 장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집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관계, 회피하고 싶었던 장소로 다시

가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단지 그 자리를 회복하기 위함만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시선과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길은 곧 변화된 나를 증명하는 길이며, 과거와는 다른 태도로 서는 훈련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억울함을 이겨내고, 복종이라는 이름의 믿음을 배워가며, 결국 그 자리를 은혜의 터전으로 바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걸음 끝에서 그녀는 이스마엘을 낳았고, 하나님께서 들으신 고통의 응답을 생명의 이름으로 안게 됩니다. '돌아가는 길'은 두려운 길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 길은 회복과 소명의 길이 됩니다.

묵상 질문

Meditation
Questions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돌아가야 할 길'은 어디입니까?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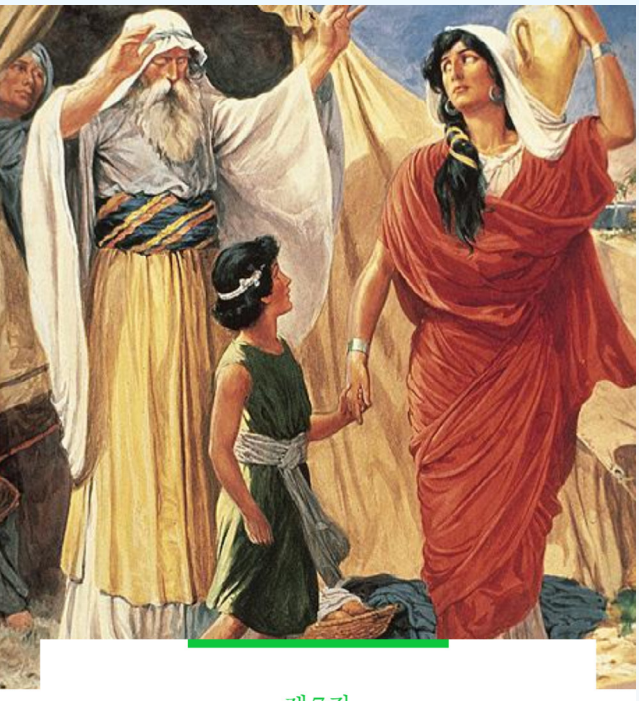
나의 '복종'은 어떤 동기로부터 비롯됩니까-두려움입니까, 아니면 신뢰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걷게 하시는 그 자리에 어떤 '약속'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묵상 기도문

Meditation
Prayers

주님,
도망치고 싶었던 그 자리에 다시 발을 딛게 하신 주님.
저의 눈이 사람의 얼굴을 향하기보다, 주님의 음성을 향하게 하소서.
억울함보다 크신 은혜, 두려움보다 깊은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걸음을 통해 주님이 준비하신 회복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의 명령이라면, 그 길은 다시 시작의 길입니다.
아멘.



제 7 장

광야에서 낳은 아들

엘로이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성경말씀
BIBLE VERSES

창세기 16:15~16

하갈이 아브람에게 아들을 낳으매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아브람이 하갈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의 나이는 팔십육세였더라.

묵상 시

Meditation
Poet

침묵을 견딘 광야
숨죽인 기다림의 나날
말씀 하나 품고 돌아온 그 자리에

하갈은 생명을 낳았다
이스마엘-하나님이 들으셨다

눈물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소리 없는 탄식 속에 찾아왔다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갈은 기억했다
하나님은 나를 보셨고
내 고통을 들으셨다는 것을

묵상 에세이

Meditation
Essay

하갈이 광야에서 돌아온 후 아들을 낳았다는 이 짧은 구절은, 성경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신학적 전환점을 암시하는 본문입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단순히 출산 기록으로 남기지 않고, 영적 의미를 담은 이름과 함께 마무리합니다. '이스마엘'–"하나님이 들으셨다." 이 이름은 단지 한 아이의 이름이 아니라, 억눌린 자들의 눈물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출 2:24]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에서 볼 수 있듯, 구약 전체에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주권과 연민의 선포입니다.

히브리어 '이스마엘'은 <샤마>(듣다)와 <엘>(하나님)의 합성어입니다. 이는 단순히 감각적인 청취가 아닌, 행동을 동반한 응답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 하갈의 부르짖음을 듣고, 무심히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듣는다'는 말은 히브리 전통에서 단지 청각이 아닌, 개입과 응답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여종이 주인의 아이를 낳는 일은 흔했지만, 그 아이가 정식 후계 혈통으로 인정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대로 불렀습니다. 이는 단지 순응의 표시가 아니라, 하갈의 체험이 아브람에게까지 영향을 주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 안에 수용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성경에 나오는 다른 탄생 이야기들과도 평행을 이룹니다. 예를 들어, 한나가 사무엘을 낳을 때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삼상 1:20]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

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마찬가지로 이스마엘 역시 '들으심'의 결과로 태어난 아이입니다. 하나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는 광야의 눈물 속에서-둘 다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교부 이레네우스는 이 장면을 "약속의 외곽에서 피어난 은혜의 싹"이라 불렀습니다. 이스마엘은 언약의 자녀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태어난 '은총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자들만이 아니라, 가장자리에서 눈물 흘리는 자들까지도 기억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하갈의 이야기와 놀랍도록 닮은 실제 간증이 있습니다. 케냐의 나이로비 빈민가에서 자란 루스 와마이(Ruth Wamai)는 다섯 살 무렵부터 아버지의 폭력과 어머니의 방임 아래 자라야 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사라져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존재'라는 생각에 시달렸고, 결

국 열다섯 살이 되었을 때 집을 뛰쳐나와 거리로 나앉았습니다. 거리에서의 삶은 혹독했습니다. 강도의 위협, 성적 학대, 질병과 굶주림이 일상이었고,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며 살던 중, 그녀는 한 날 밤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녀를 돌본 한 기독교 여성 간호사가 있었는데, 그는 루스를 보호소로 안내해주었고, 그곳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들어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매일 새벽 함께 드리던 예배 중, 한 목사님이 "하나님은 당신의 울음을 들으신다"고 외치던 날, 루스는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날 저는 말없이 울었지만, 제 속에서는 누군가가 제 이야기를 다 듣고 있다는 확신이 밀려왔어요. 아무도 몰라줬던 내 인생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녀는 이후 보호소에서 신앙 훈련과 직업 교육을 받으며 간호 자격증을 취득했고, 오

랜 기간 여성 병동에서 일하면서 같은 상처를 가진 이들을 돌보았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루스는 자신의 사역 단체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 이름을 '이스마엘 미니스트리'라 명명했습니다. 그 이유를 묻자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낳은 이스마엘은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증거예요. 내가 경험한 들으심을 다른 사람도 경험하게 하고 싶었어요."

지금 그녀는 '이스마엘 미니스트리'를 통해 매년 수백 명의 거리 여성과 미혼모, 학대 피해자들에게 상담, 교육, 돌봄과 복음을 전하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늘 말합니다. "광야였던 나의 과거가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품는 자궁이 되었어요. 내 삶이 증언이에요. 하나님은 정말로 들으시는 분입니다."

이 간증은 하갈의 이야기와 그대로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돌아가야 할 자리, 눈물 속에 다시 세워야 할 미래, 그 모

든 곳에서 하나님은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루스의 삶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광야 같은 현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외면당하고, 소외당하고, 아무도 나의 마음을 몰라준다고 느낄 때, 하갈처럼 또는 루스처럼 버려졌다는 감정을 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그 자리에 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연약해질 때, 우리를 가장 가까이서 들으시고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 아이의 탄생처럼 물리적 현실로 주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내면의 변화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듣고 계시며, 적절한 때에 말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 삶에도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단지 과거의 인물이나 성경 속 기록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현존하시는 약속입니다. 당신의 눈물이 헛되지 않았음을, 하나님의 귀에 닿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며, 당신 삶에도 다시 시작될 응답의 이야기를 기대하십시오.

묵상 질문

Meditation
Questions

지금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 부르짖음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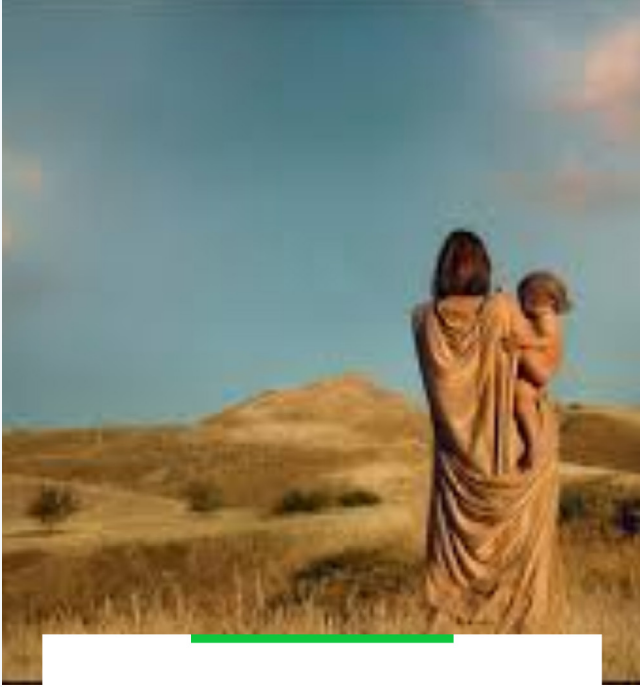
내가 순종함으로 태어나야 할 '이스마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증거할 이름, 내가 붙들고 있는 이름은 어떤 것입니까?

묵상 기도문

Meditation
Prayers

주님,
저의 탄식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광야에서 부르짖은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응답되게 하소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처럼
저도 나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
하게 하소서. 아멘.



제 8 장

약속과 침묵 사이에서 기다리다

엘로이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성경말씀

BIBLE VERSES

창세기 17:18~19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묵상 시

Meditation
Poet

기다림은 믿음의 시간이다
약속은 있지만 기적은 멀고
현실은 조용한 절망만 말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침묵 중에도, 지연 속에도
그분의 시간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

우리는
아직 도착하지 않은 응답 앞에서도
믿음으로 자리를 지킨다

묵상 에세이

Meditation
Essay

아브라함은 마음 깊은 곳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비록 그 아이는 하나님이 처음 약속하신 언약의 자녀는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은 그를 사랑했고, 그가 하나님의 축복 아래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원했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에는 아브라함의 진심, 인간적인 정과 신앙의 간극이 녹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라고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자녀는 사라에게서 날 것이며, 그 이름은 이삭이라 하십니다. 이 말

씀은 단지 미래에 태어날 아이의 예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각과 방향을 다시금 교정하시는 신적 개입이며, 인간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크고 온전하다는 것을 명확히 선포하신 장면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아니다'는 표현은 단순한 부정이 아니라, 히브리어 <로>라는 단어로, 단순히 '아니다' 또는 '하지 않는다'는 뜻을 지니지만, 문맥에 따라 매우 강한 거절이나 신적 선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뿐 아니라 성경 전반에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구분짓는 데 쓰이는 핵심적인 어휘입니다. 강한 거절과 정정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단호하게 아브라함의 안일한 타협을 거절하시고, 약속의 본래 궤도로 그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삶에서도 반복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정한 대안을 하나님이 존중하시지 않는 것은, 우리의 계획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나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이츠하크>이며, '웃다', '기쁨으로 웃음 짓다'라는 뜻을 지닙니다. 사라가 그 이름을 들었을 때 비웃었지만, 결국 기쁨의 웃음이 되었듯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웃음으로 결실을 맺게 됩니다. 우리는 기다림 속에서 종종 하나님의 침묵을 의심하지만, 그 침묵조차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는 은혜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체하지 않으시며, 그분의 침묵은 무능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한 실존 간증을 소개합니다. 미국 뉴욕의 흑인 커뮤니티에서 사역하던 타냐 윌리엄스(Tanya Williams) 전도사는 30대 초반부터 결혼과 임신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응답이 없었고, 반복된 자연유산과 건강 문제로 인해 절망에 빠진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사역자 수련회에서 들은 설교를 통해 마음을 크게 움직였습니다. 설교

자는 창세기 17장의 이삭의 약속을 들려주며, "하나님은 우리가 정리한 뒤에 약속을 시작하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은 타냐에게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정리해야 할 건 무엇인가?" 그녀는 오랫동안 마음 한편에 놓아두었던 씀풀이와 낙심,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보다 빠른 결과를 원했던 조급함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그날 하루를 바치는 기도를 하며, 더 이상 아이를 얻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신앙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특별한 계시나 기적적인 상황 없이, 그녀는 자연스럽게 임신을 하게 되었고, 평안 가운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타냐는 그 아들을 '자이언(Zion)'이라 불렀습니다. 이유는 그 이름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라는 뜻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 게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결국 내 마음의 광야에 웃음을 주셨

습니다."

타냐의 간증은 기다림 끝에 피어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각자의 삶 속에서 고유하게 실현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독자인 우리도 이 이야기 속에서 자신을 비춰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무너진 기대와 타협된 현실 속에 '이스마엘이면 족하다'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여전히 '이삭의 웃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의 삶 한복판에 임하실 그 약속을 믿으며 기다리는 이들에게, 타냐의 이야기는 깊은 위로이자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각 사람의 삶 속에 고유하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아니라'를 통해 더 풍성한 '예'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녀의 삶은 지금도 뉴욕 브루클린의 한 작은 교회에서, 같은 고통을 겪는 여성들에게 희망을 전하며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이스마엘로 충분합니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현실의 타협이 우리를 안정시키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은 너무 멀게만 느껴질 때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니라"는 사랑의 거절입니다. 성경은 이와 유사한 장면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절이 결국 더 깊은 은혜로 이어짐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은 다윗의 형 엘리압을 보고 그가 기름부음을 받을 자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단호히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삼상 16:7). 다윗 역시 성전을 짓고 싶어 했으나, 하나님은 "너는 아니다"라고 하시며 그 사명을 솔로몬에게 넘기셨습니다(대상 28:3). 이처럼 하나님의 거절은 무시가 아니라 방향 전환이며, 더 큰 계획의 시작입니다. 더 큰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더 깊은 은혜를 부으시려는 하나님의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은 소극적 인내가 아닙니다.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기다림은 존재의 가장 정직한 기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본회퍼는 '하

나님은 항상 정시에 오시지만, 결코 우리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하는 가장 능동적인 선택입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시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실현될 때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르며 웃게 될 것입니다-이삭.

묵상 질문

Meditation
Questions

나는 지금 어떤 '이스마엘'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니라'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내가 지켜야 할 믿음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묵상 기도문

Meditation
Prayers

주님,
저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마엘로 만족하고자 했던 제 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그 기다림 끝에 이삭의 웃음을 품게 하소서.
아멘.

제 9장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엘로이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성경말씀
BIBLE VERSES

창세기 17:18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
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묵상 시

Meditation
Poet

눈물 한 방울에
숨죽인 고백이 담겼고
체념과 갈망이 뒤엉킨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속삭였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스마엘이라도
주님 앞에 살게 해 주세요."

믿음과 의심 사이,
기다림 끝에 피어난 타협,
그 속에서도 놓지 못한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목소리 너머

더 깊고 더 큰 일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묵상 에세이

Meditation
Essay

아브라함은 간절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스마엘이라도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해 주세요.'

그 고백은 신앙인의 깊은 절망이자, 동시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순수한 외침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한마디는 믿음으로 가득한 기도 같지만, 그 안에는 오랜 기다림에 지친 한 사람의 마음이 녹아 있었습니다. 하

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고, 현실은 사라가 아이를 낳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갈을 통해 얻은 이스마엘은 이미 자라고 있었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속삭이고 싶었을 겁니다. "하나님, 그냥 이 아이로도 괜찮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마음은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서 흔히 느끼는 감정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간절히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고, 약속은 멀기만 할 때 우리는 현실 속 손에 잡히는 결과를 붙들며 타협하려 합니다. '이 정도면 감사해야지', '이만하면 괜찮은 거야'라는 말로 스스로를 설득하며, 마음 한편에 남은 기대와 소망을 억누릅니다.

아브라함이 말한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는 고백은 그런 현실 타협과 신앙의 줄다리기 끝에서 흘러나온 절박한 중보였습니다. 히브리어 <하야>는 '존재하다', '의미 있게 살다'는 뜻으로,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호히 "아니라" 하십니다. 그 대답은 차가운 거절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더 큰 약속으로 이끄시는 사랑의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자기 손으로 만든 결론에 안주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생존이 아닌 '언약의 삶'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을 약속하신 것이고, 아브라함의 타협된 기대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선명하게 새겨주신 것입니다.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이스마엘 신앙'과 '이삭 신앙' 사이를 오가며 살아갑니다. 쉽게 얻어진 결과에 만족하고, 눈앞의 안정된 현실에 안주하면서도 한켠으로는 더 큰 부르심과 소망을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란다. 나는 아직 너에게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예비해두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너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대상 28:3). 사무엘이 다윗의 형 엘리압을 보고 기름 부으려 했을 때, 하나님은 "그가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삼상 16:7). 하나님의 거절은 단지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아직 아니다', '더 좋은 것이 있다'는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인간이 기대한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그 실망을 줄이기 위해 마음속에서 다른 이유를 만들어낸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합리화', '승화'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을 언약의 자녀로 받아들이며 스스로에게 설명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방어선을 넘어서 진짜 약속으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기독교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믿음은 하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실 때, 그분을 선택하는 고독한 결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디트리히 본회퍼도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지만, 우리의 시간표에 맞추어 오시지도 않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결국 믿음은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입니다.

일본에서 20년 넘게 조용히 선교사역을 해오던 김정혜 사모님은 한 시골 마을에서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수년간 회심자도 없고, 예배당에 앉아 있는 사람도 점점 줄어들 때, 그녀는 지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에요? 저 여기까지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더는 못하겠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주, 평소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일본 여성 한 분이 갑자기 예배 후에 찾아와 눈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족, 친구들까지 교회로 인도되어 교회는 작은 부흥의 불꽃을 경험하게 됩니다. 김 사모님은 이렇

게 말했습니다. "제가 포기하자, 하나님은 시작하셨어요. 내가 끝이라고 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새 일을 여셨습니다."

지금 당신도 어떤 '이스마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너무 지치고 실망스러워서 "이 정도면 됐잖아요"라고 말하고 계시진 않나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더 큰 약속을 준비해 두었다. 너는 포기했을지 몰라도, 나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을 주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약속을 붙들며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묵상 질문

Meditation
Questions

나는 지금 어떤 '이스마엘'을 하나님께 드리며 만족하려 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아니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나는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내가 다시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요?

내 삶의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나요?

묵상 기도문

Meditation
Prayers

하나님,
제가 너무 오래 기다리다 지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눈앞의 것에 안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걸요.
제가 다시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신뢰하게 해 주세요.
아멘.

제 10 장

광야에도 은혜가 흐른다

엘로이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성경말씀
BIBLE VERSES

창세기 21:17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묵상 시

Meditation
Poet

버려졌다고 느꼈을 때
아무도 내 아픔을 보지 못할 때
광야 한복판에서
울음마저 말라버릴 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당신의 울음
당신의 떨리는 숨결
당신의 마른 눈빛까지도

그분은 결코
당신을 놓치신 적이 없습니다

묵상 에세이

Meditation
Essay

하갈은 자신이 완전히 버려졌다고 느꼈습니다. 사라의 집에서 쫓겨나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아들과 함께 광야를 떠돌며 목숨을 이어가는 하루하루. 물은 다 떨어지고, 태양은 가차 없이 내리쬐며, 아들은 지쳐서 쓰러졌습니다. 그 광경을 더 이상 볼 수 없어, 하갈은 아이와 떨어진 곳에 앉아 울부짖습니다. "아이가 죽는 걸 도저히 볼 수 없어..." 그 말은 고대 근동 사회에서 여성이 할 수 있는 가장 절박한 말 중 하나였습니다. 아들을 지켜줄 수도, 도울 수도 없다는 철저한 무력감 속에, 그녀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갈의 울음이 아니라, 이스마엘의 울음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한 자의 음성에 먼저 반응하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샤마>는 단순히 '소리를 듣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귀를 기울이고 주의 깊게 듣고, 그에 따라 반응하다'는 복합적인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샤마>는 단지 수동적인 청취가 아니라, 행동을 유발하는 듣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 6:4의 "이스라엘아 들으라"에서 사용된 단어도 바로 <샤마>이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들었다'는 차원이 아니라 '순종했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마엘의 울음을 들으셨다는 말은, 그저 감정적으로 반응하신 것이 아니라, 응답하시고 행동하셨다는 뜻입니다. 단지 소리가 들렸다는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의 시작을 뜻하는 말입니다.

교부 요한 크리소스톰은 이 구절에 대해 "하나님은 강한 자의 간구보다 약한 자의 눈물을 먼저 들으신다"고 해석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광야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묻는 이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답입니다. 그분은 항상 듣고 계시며, 특히 울부짖는 자의 마음을 가장 먼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하갈을 부릅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이 장면은 마치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을 떠도는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묻는 질문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시작입니다. 이는 우리의 고통을 알아채신 하나님께서 먼저 말을 걸어오시는 사랑의 방식입니다.

또한 사자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할 때 자주 반복되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가 임할 때마다 주어졌던 안심의 메시지입니다. 야곱이 광야에서,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들었던 바로 그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우리에게도 들려오는 위로입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에서는 '광야'가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인간의 계획이 무력화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또렷하게 나타납니다.

이 사실은 성경 속 여러 인물들의 삶에서도 반복해서 드러납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가 아니라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양을 치며 무려 40년을 보냈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출 3:1~6). 이스라엘 백성 역시 애굽을 떠나

광야 40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배웠습니다. 신명기 8:2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 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엘리야도 호렙 산 광야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고(왕상 19:12),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 유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그때 "[시 63:1]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고대 유대 랍비들은 이 장면을 해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입김이 닿는 공간이다. 사람은 바닥에 엎드려질 때, 비로소 하늘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하갈에게 주어진 응

답이 하갈 자신이 아닌 '그 아이'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갈을 위로하시지만, 구체적으로 들으신 건 이스마엘의 울음이었고, 복의 약속 또한 아이에게 주어집니다. 이는 하나님이 다음 세대, 연약한 자, 아무 영향력 없어 보이는 자를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성경 전체의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모세가 갈대상자에서 울었을 때, 사무엘이 어릴 적 성소에서 부름을 들었을 때처럼, 하나님은 어린자의 음성을 통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십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만난 광야의 하나님은, 우리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직장, 가정, 관계, 건강, 재정 등 모든 것이 말라버린 것 같은 인생의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광야는 우리가 하나님의 들으심을 가장 또렷하게 체험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실제 간증 하나를 소개합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노숙인 사역을 해오던 캐럴린 제임스

(Carolyn James)는 수년 동안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을 돌보아왔습니다. 어느 날 새벽, 무척이나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텐트촌을 방문하던 그녀는 작은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텐트를 열어본 그녀는, 겨우 열두 살밖에 되지 않은 한 소년이 담요도 없이 웅크린 채 떨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소년은 며칠 동안 굶었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족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고, 그는 임시 보호소에서도 여러 번 쫓겨나 이곳까지 떠돌다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캐럴린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도 하지 않고, 음식을 가져다줘도 돌려보냈습니다. 캐럴린은 매일 아침 따뜻한 수프와 함께, 짧은 쪽지를 하나씩 두고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보고 계신단다." "하나님은 너의 울음을 들으셨단다." 그러기를 몇 주. 어느 날, 소년은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와 묻습니다. "정말요? 하나님도 이런 아이 목소리를 들으세

요?"

캐럴린은 눈물을 머금고 말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말조차 나오지 않는 네 눈물도 들으셔. 내가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야." 그 말에 소년은 처음으로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소년은 그날부터 캐럴린이 운영하는 쉼터에서 생활하게 되었고, 조금씩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성경 공부에 참여했고, 찬양을 배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이 정말 나도 사랑하세요?"라고 물었고, 그 질문은 그를 회복으로 이끄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지역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고등학교를 마친 후, 그는 신학교에 진학했고, 자신이 자랐던 거리 한복판에서 청소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는 '길 위의 소리(The Voice in the

Streets)'라는 이름으로 매주 노숙 청소년들에게 식사를 나누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울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 계셨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 누군가를 보내셨어요."

캐럴린 제임스는 지금도 그 지역에서 노숙인 식탁 공동체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내가 들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저는 그냥 하나님의 들으심에 반응하는 손과 발이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너져 눈물 흘릴 때, 기도할 힘조차 없어 조용히 앉아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며, 우리의 울음을 듣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누군가의 감동적인 간증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의 삶에 살아 있는 진리입니다. 누

구나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하갈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끝이야', '나는 버림받았어', '누구도 내 아픔을 알지 못해'. 그런 고백들이 쏟아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들었다."

삶의 광야에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외로움 속에서, 가장 낮은 울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들으심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경제적인 광야, 관계의 깨어짐, 질병의 고통, 자녀의 방황, 마음의 우울과 외로움 속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이 한 가지 진리가 다시 용기와 소망을 일으키는 기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지금도, 이 순간에도.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울음을 들으셨을 뿐 아니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분의 응답은 우리가 기대한 방식과는 다를 수 있지만, 항상 우리에게 꼭 필요한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주님 앞에서 울 수 있는 정직함과, 그 들으심을 믿고 다시 일어설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 광야에서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셨듯이, 오늘도 우리 삶의 사막 한가운데에서 은혜의 샘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는 단지 눈을 들어 그것을 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너져 눈물 흘릴 때, 기도할 힘조차 없어 조용히 앉아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며, 우리의 울음을 듣고 계십니다.

묵상 질문

Meditation
Questions

지금 내 삶에 광야처럼 느껴지는 영역은 어디인가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말씀이 내게 어떤 위로로 다가오시나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진짜 울음, 기도는 무엇인가요?

묵상 기도문

Meditation
Prayers

하나님,
제가 너무 오래 기다리다 지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눈앞의 것에 안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걸요.
제가 다시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신뢰하게 해 주세요.
아멘.

제 11 장

말씀하시는 하나님

엘로이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성경말씀

BIBLE VERSES

창세기 21:18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내가 그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묵상 시

Meditation
Poet

낙심한 하갈에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무너진 자에게
약속은 다시 시작됩니다

"일어나라"
"붙들라"
"크게 될 것이다"

그분은 말씀이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묵상 에세이

Meditation
Essay

하갈은 아들을 안은 채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죽음을 예상하고 통곡했지만,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이 들려오고 나자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이의 울음을 들으셨고, 이제는 하갈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일어나라,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내가 그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장면은 단순히 하갈이 아이를 다시 껴안는 장면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절망이 반전되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히브리어 원어에서 "일어나라"는 동사 <쿰>은 단순한 육체적 움직임을 넘어, 하

나님의 개입과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쿰>은 구약 전반에 걸쳐 하나님의 명령이나 구원의 행동을 일으킬 때 자주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을 명하실 때도 하나님은 "일어나라(<쿰>) 이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너라"(수 1:2)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지 자리에서 일어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 전진하라는 부르심입니다.

또한, 선지자들을 통해 반복적으로 전해지는 '일어나라'는 명령은 백성에게 회복과 회개, 새출발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사야 60:1에서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말씀은, 절망 속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여시며 주시는 말씀입니다.

<쿰>은 쓰러졌던 이들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담긴 단어입니다. 죽었던 자를 살리실 때도 예수님은 "소녀야 일어나라(<쿰>)"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막 5:41). 따

라서 이 말은 영적 재생과 회복, 부르심과 사명의 회복까지 모두 포괄하는 강력한 표현입니다.

하갈에게 주어진 <쿰>의 명령은, 단지 육체적 동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녀를 다시 어머니로, 사명의 자리로, 회복의 길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은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붙들라"는 명령은 아이를 다시 책임지고 돌보라는 뜻이며, 단지 감정적인 위로를 넘어 삶의 방향을 새롭게 정해주는 실질적인 지침입니다. 이어지는 "내가 그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말씀은 창세기 16장에서 이미 주셨던 약속을 다시 확인시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고,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그분의 음성은 쓰러진 자의 심장을 일으키는 생명의 숨결"이라고 말했습니다.

하갈이 다시 아이를 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성경 속 다른 회복의 명령들과도 깊이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말씀(막 2:9), 엘리야가 낙심하여 쓰러졌을 때 천사를 통해 "일어나 먹으라" 하신 하나님의 음성(왕상 19:5~7) 모두가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으키심이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는 낙심 속에 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도 없고, 소망도 희미하며, 무거운 현실이 어깨를 짓누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일어나라. 붙들라. 내가 여전히 너를 통해 일할 것이다."

이 말씀은 상처 입은 부모에게, 실패를 경험한 사역자에게, 방황하는 자녀를 위해 기

도하는 어머니에게, 반복된 좌절 앞에 낙심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침묵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제 간증 하나를 나눕니다. 미국 시카고에 사는 김세라 자매는 30대 중반, 감당할 수 없는 우울증과 직장 내 따돌림,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병환까지 겹치며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조차 고통스럽게 느껴졌고, 교회조차 가기 힘든 날이 많았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들리지 않았고, 자신은 철저히 외면당한 존재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새벽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설교 한 구절이 그녀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신다. 절망 속에 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 다시 붙들라.' 그 순간 김 자매의 가슴에 무언가가 전해졌습니다. 자신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

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작은 노트를 한 권 마련해, 매일 아침 성경을 펴고 그날 받은 말씀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작은 묵상이라도 기록했고,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일 년이 지나자, 그녀의 삶은 놀랍도록 변화되었습니다. 우울증 치료를 병행하며, 교회 봉사에 다시 참여했고, 지금은 같은 고통을 겪는 자매들을 위한 '회복 묵상 모임'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제가 일어설 수 있었던 건, 상황이 나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 한 줄이 제 손을 붙들어주었어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단지 상황의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힘이며, 그 말씀이 우리의 광야

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갈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반응해야 합니다. 눈물을 닦고, 아이를 품고, 걸어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단지 하갈이나 김세라 자매와 같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가정에서 외롭게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일지라도, 반복되는 직장 생활에 지쳐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가장일지라도, 병상에 누워 있는 노년의 어르신일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옵니다. "일어나라. 붙들라."

말씀은 추상적인 위로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의 현실을 꿰뚫고 들어오는 실제적인

힘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버텨야 할 근거이며,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주저앉지만, 말씀이 들리면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나를 낙심하게 했는지, 무엇이 나를 넘어뜨렸는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음성은 죽은 심령을 살리고, 무너진 자를 일으키며, 잃어버린 미래를 다시 회복시킵니다.

묵상 질문

Meditation
Questions

지금 내 삶에 광야처럼 느껴지는 영역은 어디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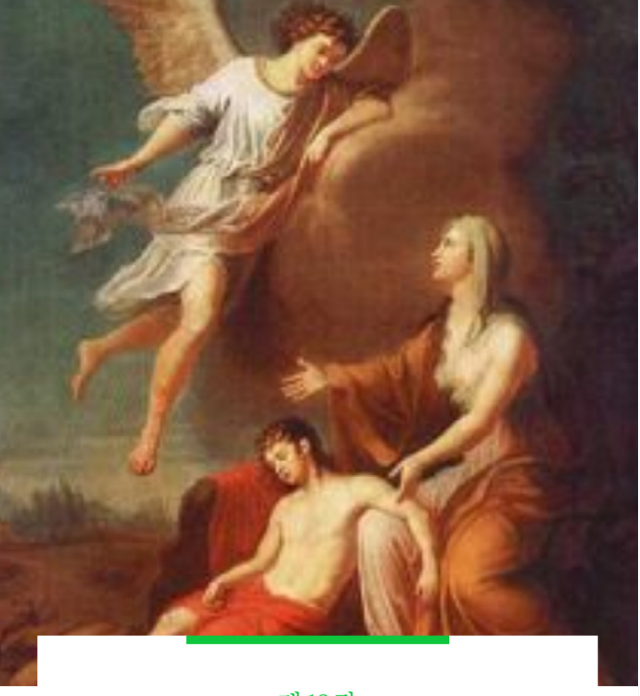
하나님의 "일어나라"는 말씀이 나에게 어떤 도전이 되나요?

내가 오늘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요?

묵상 기도문

Meditation
Prayers

하나님,
제가 너무 오래 기다리다 지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눈앞의 것에 안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걸요.
제가 다시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신뢰하게 해 주세요.
아멘.



제 12 장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엘로이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성경말씀

BIBLE VERSES

창세기 21:20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묵상 시

Meditation
Poet

버려진 줄 알았던 광야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작고 연약한 생명 위에
하나님의 손이 머물렀고

그 손은 보호하셨고
그 길은 자라게 하셨고
그 은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묵상 에세이

Meditation
Essay

하나님은 이스마엘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버림받았다고 느꼈던 그 광야, 외롭고 메마른 땅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이 짧은 구절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을 보여주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분입니다.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자랐습니다. 물이 넉넉하지 않았고, 안전도 보장되지 않았으며, 생존 자체가 매일의 도전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광야는 단순히 척박한 환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뜨거운 태양, 급작스런 사막 폭풍, 맹수의 위협, 사

막 유목민 사이의 충돌 등 온갖 위험이 도사리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혹독한 현실은 심리적 고립감과 존재의 부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언약의 자녀가 아니라는 이유로 쫓겨났고, 아버지에게서도 어머니에게서도 완전히 보호받을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 심리적 상처는 단순한 외로움을 넘어서, 자존감의 붕괴와 정체성의 혼란을 불러왔을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버림받았는가?', '내가 존재할 이유가 있는가?'와 같은 질문들은 광야의 고통보다 더 깊은 내면의 광야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깊은 외로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함께 계심'으로 이스마엘을 돌보셨고, 스스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내적 기반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이스마엘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케냐 나이로비 외곽의 빈민촌에서 자란 조엘 무테

니(Joel Muteni)라는 청년은 열두 살에 부모를 모두 에이즈로 잃고 길거리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매일 굶주림과 거리 폭력에 시달렸고, 학교도 갈 수 없었으며, 자기를 보살펴 줄 어른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한 선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쉼터를 통해 말씀을 접하게 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나를 보고 계셨고, 나를 위해 준비하고 계셨다는 걸 믿게 되었어요."

조엘은 지금 케냐 내에서 고아들을 위한 기독교 사역단체를 운영하며, 자신처럼 내던져졌던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셨기에, 저도 이제 누군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광야가 끝이 아니라는 걸, 제 삶이 증명하고 싶어요."

이스마엘과 조엘은 시대와 지역은 달라도, 같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외롭고

버려진 듯한 자리에 하나님은 오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으며, 그 광야에서 새 길을 내셨습니다. 지금 당신이 처한 상황도 혹 광야 같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자리에 계시며, 그곳에서 새 삶을 일으키십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하갈은 아들에게 광야의 길을 가르치며 늘 이렇게 말했다고 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남게 하셨다. 그분은 우리를 보셨고, 앞으로도 돌보실 것이다." 그 가르침 아래 자란 이스마엘은 단지 광야의 생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품은 자로 자라났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라는 환경을 없애주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이스마엘을 키우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단번에 제거하지 않으실 수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함께 계시매'에 해당하는

표현은 <임마누>이며, 이는 '함께 거하다', '동행하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단지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고 인도하며 계속적으로 관계 속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임마누엘(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이라는 이름도 이와 같은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약속받은 자들뿐 아니라, 소외된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합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창 39:21).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광야에서 방황하던 때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시 23편).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는 성소에만 머물지 않고, 광야에도 머무십니다.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동행을 고백했던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히 본회퍼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장 극적으로 증

언한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는 나치 정권에 저항하다가 투옥되었고, 그 감옥 안에서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일기와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글 중 하나인 『옥중서신』은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와 신앙의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의 삶을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동행의 시간'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멀리서 관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감옥에 갇히시는 분이시다." 그의 이러한 고백은 단지 철학적 사유가 아니라, 매일의 고통을 살아내는 치열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본회퍼는 감옥에서 자신이 겪는 외로움과 두려움,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는 때로 울며 기도했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침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 가

운데 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실제로 그는 1945년 4월, 베를린 근교 플로센뷔르크 수용소에서 순교하기 직전, 간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그의 죽음은 수많은 사람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본회퍼를 고난에서 즉시 구해주시지 않으셨지만, 그 고난 한가운데서 본회퍼와 '함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붙드시고, 믿음 안에 머물게 하셨으며, 결국 그의 생애 전체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함께하신다'는 복음의 증거로 삼으셨습니다.

그와 같은 고백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교훈을 줍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아무리 황폐하고 외로워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그것이 믿음이며, 그것이 광야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 삶의 여러 자리에서 우리는 본회퍼처럼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직장 안에서 혼자 신앙을 지키며 싸우고 있는 이들, 가족 안에서 믿음을 오롯이 감당하며 울고 있는 부모들, 질병과 싸우며 하나님께 묻는 노년의 어르신들, 어디든지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심'은 단지 동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과 손, 말씀이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외로울수록, 우리가 두려울수록 하나님은 더욱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까지 곁에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손을 붙들고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오늘이 아무리 버거워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루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낙심 가운데 있다면, 기억하십

시오.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리를 회복의 자리, 약속의 자리로 바꾸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환경이 아니라, 그분이 함께하신다는 사실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같은 시기가 있습니다. 관계가 끊어지고, 재정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잘 나아갈 때만이 아니라, 가장 연약하고 무너진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걸으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활 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동행 속에서 자립하고 회복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약속대로 큰 민족의 기초로 세우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고통은 끝이 아니라, 하

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묵상 질문

Meditation
Questions

지금 내 삶에 광야처럼 느껴지는 영역은 어디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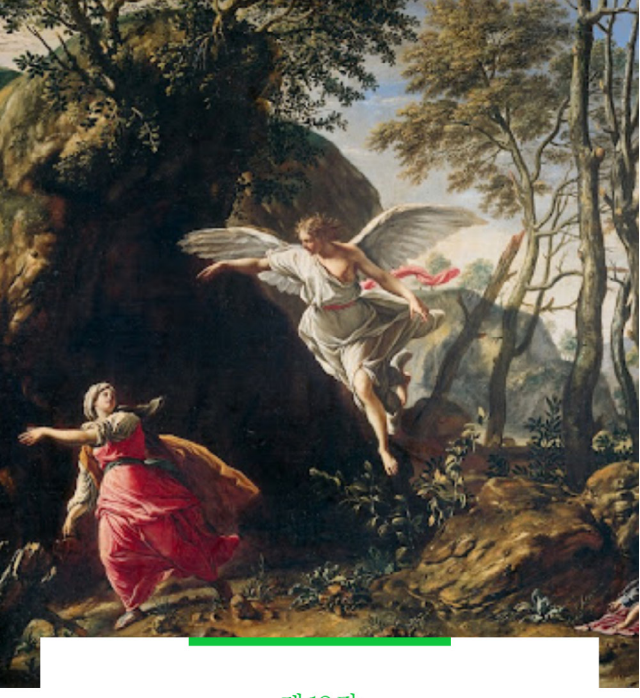
하나님의 "일어나라"는 말씀이 나에게 어떤 도전이 되나요?

내가 오늘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요?

묵상 기도문

Meditation
Prayers

하나님,
제가 너무 오래 기다리다 지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눈앞의 것에 안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걸요.
제가 다시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신뢰하게 해 주세요.
아멘.



제 13 장

이름 없는 사람을 위하여

엘로이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성경말씀

BIBLE VERSES

창세기 21:21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묵상 시

Meditation
Poet

무명의 인생, 이름조차 빛나지 못한 길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름 없는 광야에도
역사 없는 이스마엘에게도
그분은 가정을 세우셨고
미래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불리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묵상 에세이

Meditation
Essay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광야 여정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하갈은 아들에게 아내를 얻어주었습니다. 이 짧은 기록은 이스마엘이 단지 살아남은 자로 남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가정을 이루고 공동체를 형성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여전히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결정적 장면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얻어 주었더라'에 해당하는 동사는 <라카흐>로, '받다', '데려오다', '취하다'는 뜻을 갖습니다. 이는 단순한 매칭의 개념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주도적인 행위, 곧 미래를 준비하고 연결하는 행위로

사용됩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아내를 선택하는 일은 그 가문의 정체성을 이어가는 중요한 역할로 간주되었습니다. 하갈의 이 행동은 한 여인의 모성적 결단이자, 광야에서도 꺾이지 않은 신앙의 발로입니다. 오늘날에도 '하갈처럼' 살아가는 여인들이 많습니다. 남편의 부재 속에 홀로 자녀를 키우며, 사회적 지지 없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자녀에게 쏟아붓는 이들. 경제적 어려움, 언어 장벽, 문화적 낙인 속에서도 자녀의 미래를 위해 길을 찾는 이민자 어머니들. 이들은 모두 하갈처럼 '아들에게 가정을 지어주는' 존재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생존을 넘어, 자녀의 정체성과 미래를 세워주는 삶의 설계자입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에게 아내를 얻어주기 위해 자신의 고향 땅인 애굽으로 돌아간 것은, 자신이 피하고 싶었던 과거의 상처를 다시 마주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땅에서 아들의 새 출발을 위해 '가정'이라는 기반을 준비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많

은 어머니들도 자신이 견뎌낸 고통과 과거의 상처를 자녀를 위한 자산으로 전환합니다. '내가 겪었으니 너는 다르게 살기를'이라는 바람으로, 그들은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희생으로 길을 엽니다.

이 시대의 하갈들은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결단하며, 여전히 자녀를 위해 미래를 설계합니다. 그들의 헌신은 언론에 조명되지 않을 수 있고, 사회적 통계 속에 집계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손을 기억하시고, 그 눈물 위에 가정을 세우십니다. 하갈의 결단은 바로 이 시대 수많은 어머니의 삶을 대변하는 위대한 상징입니다.

이스라엘의 유목민 전통에서는 결혼이 단지 남녀의 결합을 넘어 가문의 연속성과 생존의 수단이었습니다. 물과 목초지가 귀한 환경 속에서 혼인은 생존 연합의 형태로 기능했고, 여인의 배경과 혈통은 공동체의 생존 전략과도 깊이 연결되었습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에게 애굽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한 것은 자신이 떠나온 땅, 고통과 눈물의 땅을 다시 껴안는 선택이자, 그 고통의 기억을 치유하며 다시 생명을 품는 길이었습니다.

교부 이레나이우스는 이 장면을 두고 "하나님은 버려진 자에게 새로운 뿌리를 허락하신다"고 해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밖에 있었던 자, 하나님의 선택선상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였던 자에게도 미래를 허락하시고, 그를 통해 민족을 세우시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보편적 자비와 깊은 섭리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 없는 자들을 향한 돌보심'의 흐름 속에 자리합니다. 룻이 광야에서 시어머니를 향해 헌신을 맹세하고 이삭의 가문에 들어가 다윗의 조상이 된 것처럼, 바울이 '약한 자를 통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전 1:27)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은 세

상의 기준과 다르게 흘러갑니다.

심리적으로도 이스마엘의 삶은 고통과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자신이 선택받지 않은 자라는 사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버림받았다는 상실감, 광야에서의 생존이라는 날마다의 긴장감 속에서 그는 깊은 자기 의심과 정체성 혼란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내면의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 무대 뒤편에서 일하는 사람들, 가정폭력이나 사회적 배제 속에서 정체성과 가치를 찾지 못한 청소년들, 이민자의 삶 속에서 언어도, 문화도 낯선 광야를 걷고 있는 이들.

실제 간증을 하나 나눕니다. 영국 런던 외곽의 빈민가에서 자란 나이젤 하몬(Nigel Harmon)은 열한 살이 되던 해, 어머니는 가출했고 아버지는 마약 중독으로 교도소에 수감되며 완전히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는 거리에서 구걸하고 쓰레기통을 뒤지며

연명했고, 보호소와 거리 생활을 전전하며 범죄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문제아'로 낙인찍혔고, 어른들은 그의 이름조차 외우지 않으려 했습니다.

15세에 처음으로 구속되었을 때, 그는 자신이 인간 취급받지 못한다는 절망감에 시달렸습니다. 한 밤, 교도소의 차가운 벽을 붙잡고 그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왜 나를 아무도 원하지 않는 걸까? 내가 왜 태어난 거지?" 그때, 매주 교도소를 방문하던 기독교 자원봉사자가 다가와 성경 한 권과 짧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그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름 없는 자를 위해 죽으셨다."

그 말이 그의 인생을 멈춰 세웠습니다. 처음엔 반발했고, 비웃기도 했지만, 감옥에서의 고독과 내면의 공허함은 점점 그 문장을 붙잡게 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침대 밑에서 성경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서의 예수님 이야기를 접하면서 그는 예수님

이 '잊힌 자', '거절당한 자', '버림받은 자'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읽고 마음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출소 후에도 쉽지 않은 삶이 이어졌지만, 그는 지역 교회에서 청소년부 모임에 참석했고, 그곳에서 자신처럼 방황하던 젊은이들과 대화하며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신학교에 진학했고, 지금은 런던 동부에서 소외 청소년을 위한 기독교 비영리단체를 운영하며, 보호소 출신 아이들에게 상담과 복음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마엘은 내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기억받지 못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지금은 내가 다른 이들의 광야에 찾아갑니다."

이스마엘의 삶은 실패와 버림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살았고,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름 없는 자, 역사 밖의 자, 사회적으로 지워진 자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쓰시는 방식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나 이력, 사회적 배경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란 광야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을 품는 터전이 될 수 있고, 하갈처럼 무너졌던 여인의 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아무리 작고 하찮아 보여도, 하나님의 시선은 당신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름 없는 사람을 잊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이름을 다시 불러주시고, 그 이름 위에 새로운 시작을 세우십니다.

우리는 종종 삶 속에서 잊힌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의 노고를 알아주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이 자리의 의

미를 묻고 싶을 때, 우리는 이스마엘의 이야기 앞에서 다시 희망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름이 불리지 않았던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셨고, 광야라는 상실과 침묵의 공간에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스마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조용히 예배당을 정리하는 봉사자, 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병실을 지키는 간병인, 자녀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꿈을 뒤로 미룬 채 헌신하는 부모, 외롭지만 정직하게 삶을 살아내는 노동자–그 누구도 기억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며, 삶의 광야 한복판에서 새 이름을 주시고 새 길을 열어가십니다.

때로는 우리도 '광야에 거주한 이스마엘'처럼 이름 없이 살아가는 이들과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 일하시며, 그들

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어가게 하신다고.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이스마엘처럼' 선택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새 역사를 써 내려가고 계십니다.

묵상 질문

Meditation
Questions

지금 내 삶에 광야처럼 느껴지는 영역은 어디인가요?

하나님의 "일어나라"는 말씀이 나에게 어떤 도전이 되나요?

내가 오늘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요?

묵상 기도문

Meditation
Prayers

하나님,
제가 너무 오래 기다리다 지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눈앞의 것에 안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걸요.
제가 다시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신뢰하게 해 주세요.
아멘.

제 14 장

축복의 길,
이스마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

엘로이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성경말씀

BIBLE VERSES

창세기 17:20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열두 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묵상 시

Meditation
Poet

세상의 중심에서 멀어진 자리에도
하나님의 복은 흘러갑니다

잊힌 줄 알았던 이름 위에
하나님의 손이 머무시고

사라진 듯했던 발자국 위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집니다

이스마엘에게 주신 축복은
경계 너머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여전히 살아 있는 약속입니다

묵상 에세이

Meditation
Essay

하나님은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향해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단지 후손의 많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삶을 직접 돌보시며, 그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펼쳐 가시겠다는 선언입니다.

히브리어로 '복을 주다'는 <바라크>는 단순히 물질적 혜택을 주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손이 머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시편 1편의 복 있는 사람처럼, 형통함과 생명력, 하나님의 은총이 삶 전반에 머무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스마엘에게 주어진 복은 단순히 숫자의 번성만이 아닌, 민족적 정체성과 하

나님의 약속 안에서의 위치를 보장하는 복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자손으로 이삭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아들 이스마엘도 축복하셨습니다. 이는 기도와 중보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 안에 있지 않은 자까지도 사랑과 공의로 돌보신다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이스라엘 랍비 문헌과 유대 전승에서는 이스마엘을 '광야의 용사'이자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자'로 해석합니다. 그가 열두 방백을 낳았다는 구절은, 야곱의 열두 지파와 분명한 병행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은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민족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지파의 조상들이 되었고, 그 이름들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대표합니다.

반면 이스마엘의 열두 방백은 언약의 계보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민족의 지도자로 세운 인물들이었습니다. 창세기 25:13~16에는 이스마엘의 열두 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며, 그들은 각각 독립적인 종족을 형성하며 아라비아 지역으로 퍼져 나갑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은 야곱의 후손처럼 하나의 민족으로 통합되기보다는, 부족 연합체 형태로 분포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각각을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복이 언약 공동체 안에만 머물지 않고, 언약 바깥에서도 지도력과 번성, 영향력을 허락하신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야곱의 지파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받았고, 이스마엘의 방백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향력을 누리는 방식으로 세워졌습니다. 두 계열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존재하며, 각기 다른 목적 속에서 사용되고 있었던 것입니

다.

교부 오리게네스는 이 비교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며 복을 얻었고, 이스마엘은 고통 가운데 울부짖을 때 복을 얻었다. 그러나 둘 다 하나님께 들린 자들이었다." 이는 두 계보 모두 하나님의 응답 안에 있었다는 신학적 메시지를 강조합니다.

역사적으로도 이스마엘의 후손은 아라비아 지역을 중심으로 퍼져 나가며, 중동의 수많은 민족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이슬람 전승에서도 이스마엘은 메카의 아버지로 추앙받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기독교 선교 역사에서도, 복음은 아랍권에 계속해서 스며들고 있으며,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한 이스마엘 후손들의 간증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 중 하나는 알제리 출신의

압둘 하피즈라는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북아프리카의 보수적인 무슬림 가정에서 자라났으며, 어릴 적부터 코란을 암송하고 이맘이 되기를 기대받던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그는 삶의 의미와 정체성에 대해 깊은 혼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가족과 종교가 정해준 길이 아닌, 자신만의 길을 찾고 싶다는 내적 갈망이 자라났고, 그 과정에서 그는 우연히 대학 도서관에서 아랍어로 번역된 성경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단의 문서라고 여기며 호기심 반, 반감 반으로 읽기 시작했지만,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접하며 마음속에 전율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잊힌 자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가 느껴온 '무시된 이스마엘의 자존감'과 깊이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는 점차 예수님이 전한 사랑과 은혜의 복음을 자신의 삶 속에서 받아들이게 되었고, 마침내 은밀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 결정은 그의 삶을 뒤흔들었습니다. 신앙이 밝혀지자 가족에게 추방당했고, 지역 사회에서도 외면을 당했습니다. 그는 길거리에서 잠을 자고, 간헐적으로 건설현장에서 일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 속에서 그는 오히려 복음이 현실의 광야 안에서도 살아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 속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는 그에게 더 이상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 자신의 삶에 살아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다가왔습니다.

하피즈는 나중에 유럽으로 피신하여 신학을 공부했고, 지금은 북아프리카 출신 난민과 아랍 청년들을 위한 온라인 제자훈련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 이름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나는 이스마엘처럼, 광야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복을 만났습니다. 나는 외면당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삭의 후손은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모든 인류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복은 언약 밖의 사람을 향해도 흐릅니다. 우리는 때로 선택받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축복을 흘리십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햇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신다."(마 5:45)

하나님의 복은 자격이 아니라, 주권의 문제입니다. 이스마엘을 향한 복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경계를 넘어 흐르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느끼는 소외, 상실, 주변성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에 오히려 적절한 자리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스마엘, 곧 야곱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은 역사적으로 긴장과 갈등

의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기원전부터 이어져 온 이 갈등은 오늘날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간의 정치적, 종교적 대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두 계보가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두 가문 모두에 주어졌고, 하나님은 어느 한쪽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으로 오셨지만, 이방인을 향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사건은 유대와 사마리아, 곧 야곱과 이스마엘의 후손 간의 경계를 넘으신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은 생수를 약속하시며 화해와 회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의 후손들, 곧 유대인과 아랍인은 갈등을 넘어 복음 안에서 화해와 회복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단지 민족의 혈통을 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새 사람을 바라보십니

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갈 3:29).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사랑하시고, 이스마엘도 축복하셨습니다. 이제는 복음 안에서 그들이 서로를 인정하고, 원수의 자리를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서야 합니다. 평화는 정치적 해결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언제나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 화해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마엘과 이스라엘, 동생과 형, 언약의 중심과 주변, 그 모든 자리를 하나님의 복음이 덮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이스마엘을 향한 복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경계를 넘어 흐르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느끼는 소외, 상실, 주변성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에 오히려 적절한 자리일 수 있습니다.

묵상 질문

Meditation
Questions

내가 느끼는 '언약 밖'이라는 감정은 어떤 상황에서 경험되었나요?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의 자존감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나요?

이스마엘과 야곱, 두 계보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복음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오늘날 이스라엘과 아랍 민족의 화해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묵상 기도문

Meditation
Prayers

하나님,
당신의 시선이 중심을 향할 뿐 아니라,
가장 외곽에 있는 자에게도 머문다는 사실이
제게 큰 위로가 됩니다.
이스마엘을 기억하신 하나님,
저도 잊힌 듯한 이 자리에서
당신의 복을 기다립니다.

저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저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언약이 실현되게 하소서.
소외된 이들과도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제 삶으로 증거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마지막 말

하갈의 여정은 단지 한 여인의 고통과 회복을 넘어서,
우리 모두의 이름 없는 시간들, 외면받은 자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며 하갈의 눈물에서 당신의 눈물을 발견하셨다면,
그것은 당신의 삶에도 엘로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시선을 머물고 계시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은 끝이 아닌 시작이었습니다.

오늘도 그분은, 당신의 광야 위에도 서 계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보고 있다.”

이 책을 읽어주신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하갈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여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길.

– 데이빗리 목사

엘로이

초판발행 2025. 4. 28
지 은 이 데이빗리 목사
펴 낸 이 홀리타임즈
등 록 제C-3913-988321
주 소 서울시 송파구 마천2동 175-1
전 화 010-3280-7689(데이빗리목사)
홈페이지 www.RevivalForChurch.com
이 메 일 inourlove@gmail.com

BEST SOLUTION FOR SUCCESS LIFE

초강추! CHANCE

참영성 참목회자 양성기관

World Spiritual Leadership Seminary

국제 신학교

강력한 능력으로 강력한 목회를 하고 싶습니까?
영성과 신학을 겸비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겸비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까?
지금 바로 신청하면 **학비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역학 과정

사역학 학사과정

고졸생으로 졸업후
사역자로 섬기고 싶은 분

사역학 석사과정

대졸생으로 졸업후
사역자로 섬기고 싶은 분

접수 수시 접수

합격자발표 개인 면접 후 통보

목회학 과정

목회학 학사과정

고졸생으로 졸업후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분

목회학 석사과정

대졸생으로 졸업후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분

접수 수시 접수

합격자발표 개인 면접 후 통보

최고의 실력과 영성 능력을 겸비한 훈련과정

국제신학교는 성경과 성령 두 날개를 달고서 보다 강력한 목회를 할 수 있는 목회자와 사역자를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설립되었습니다. 국제신학교를 통해 당신도 강력한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셔서 세계 최상의 신학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데이빗리 학장

University of Arizona 석사
University of Hartford 석사
Gordon-Conwell 신학교 목회학석사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 대표

국제신학교 서울시 송파구 마천로 51길 25
www.WSLseminary.com / 010-3280-7689